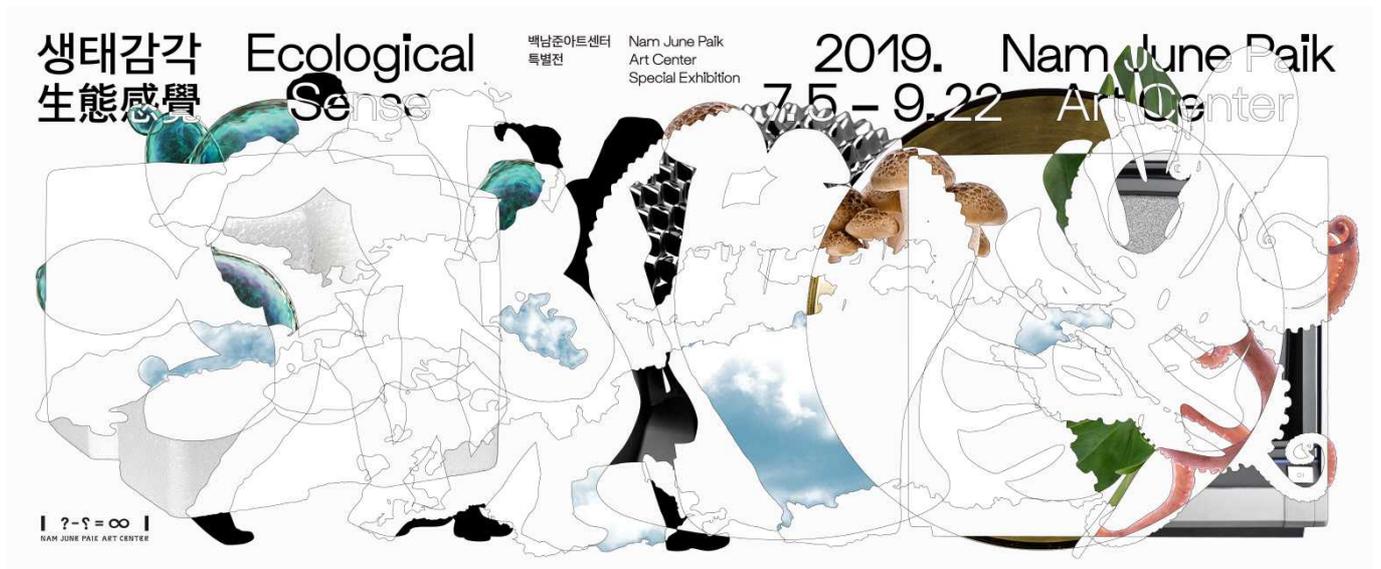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생태감각》 <i>Ecological Sense</i>		
문의	학예실 전시문의 : 구정화(t. 031-201-8542 m. 010-2703-8402) 취재문의 : 김선영(t. 031-201-8552 m. 010-4665-9290)		
자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포	2019. 7. 4.	쪽수	총 13 매

‘자연’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며
 생태적 감각으로 인류세를 통과하기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생태감각 *Ecological Sense*
- 전시기간 : 2019. 07. 5(금) ~ 2019. 9. 22(일) (휴관일 포함 80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제 2전시실 (2층)
- 개 막 식 : **2019년 7월 5일(금) 오후 4시** (장소 : 1층 로비)
- 초청강연 : **2019년 7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 2층 세미나실)
 <생태감각과 생태운동>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큐레이터 : 구정화
- 참여작가 :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리슨투더시티, 박민하, 박선민, 백남준, 아네이스 톤 데, 윤지영, 이소요, 제넌기, 조은지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협 찬 : 산돌구름

■ 개막 행사 개요

○ 개막식

2019년 7월 5일 오후 4시

○ 개막 초청강연 <생태감각과 생태운동> -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 행사일시 : 2019년 7월 5일 오후 2시
- 참여 방법 : www.njpartcenter.kr 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참가비 무료

○ 워크숍 : 발효컬트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 행사일시 : 7월 5일, 6일, 13일
- 참여대상 : 성인
- 행사내용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강사
7/5(금) 13:00~16:00	DIY누룩캡슐	미생물과 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통누룩을 제작해보는 워크숍	김계원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조태경 ((사)한국전통주연구소 수석강사)
7/6(토) 14:00~17:00	발효픽션 : 글쓰기 워크숍	발효를 매개로 인간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구상하고 이를 글로 글쓰기로 구성해봄	김영래(시인, 소설가)
7/13(토) 14:00~17:00	짬줍러들을 위한 소셜 발효 랩	짬수집가들을 모아 공동의 짬줍기를 시도해보는 프로그램	임태훈(테크노컬처 비평가, DGIST 용북합대학 기초학부 교수)

- 참여 방법 : www.njpartcenter.kr 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참가비 무료

○ 개막행사 무료 셔틀버스 (정시출발)

- 12:30 합정역 2번 출구
- 13:00 사당역 1번 출구
- 14:30 합정역 2번 출구
- 15:00 사당역 1번 출구

예약 온라인 신청 www.njpartcenter.kr
 문의 : t 031-201-8559

I. 전시 개요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2019년 7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특별전 《생태감각》을 개최한다. 《생태 감각》은 지구 생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간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생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감각을 제안하는 전시이다.

후기 자연, 혹은 인류세로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의 심각함을 느끼면서도 인간 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땅 아래 묻어 버리는 지구 사용법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구 절멸과 인류 멸종이라는 예언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며 매일의 밥상과 출퇴근길에 흡입하는 미세먼지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재규정한다. 자고 나면 하나씩 생겨나는 쓰레기산, 플라스틱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와 사막화된 땅은 우리의 일상이자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 서식자의 최상위층에 위치한 인간은 자본화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정보를 습득하고 미디어가 제한하는 시공간을 살아가며 주어진 감각만을 소비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향된 감각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게 지구의 미래를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가져야 할 생태학적 전망은 과연 무엇일까? 전시의 참여 작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구 서식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생태적 지위를 새롭게 찾고자 한다. '생태적 리터러시' 이기도 한 이 감각은 분절화된 사회 속에서 정보의 전달과 기술의 축적에만 골몰해가는 현 인류가 지구 환경 전체에 대한 비전을 토대로 회복해야 할 생태적 감수성을 의미한다.

전시는 정원의 식물과 곤충들, 깊은 숲속의 버섯과 미생물, 바다 속 문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소와 개, 인간 기술의 오랜 재료였던 광물과 같은 생명/비생명의 존재들과 감응하며 생태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천이(遷移)를 상상하며 구성하였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철학자의 선언처럼 전시장의 관람객들이 서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에너지를 나누며 지구의 새로운 존재자들과 연결되기를 기대해본다.

II. 전시 구성

전시는 '인간의 자연'과 '서식자' 라는 주제로 나뉘어 구성된다. '인간의 자연'에서는 인간에 의해 확장되고 구성되는 자연이라는 주제 아래 백남준의 <사과나무>, <다윈>, 이소요의 <TV정원: 주석>과 윤지영의 <에라>, 아네이스 톤데의 <체르노빌 식물표본>, <갈릴리트>, <카본블랙>, 제닌기의 <선구체 I, II> 가 전시된다. 텔레비전을 환경으로 인식한 백남준의 미디어 생태학에서 시작해 목가적 자연 풍경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을 기록한 이소요의 작품, 인간 중심의 자연관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아네이스 톤데의 작품을 거쳐 기술의 재료가 되어왔

던 물질을 새롭게 감각해볼 것은 제안하는 제닌기와 인간의 욕망과 기술 발전 사이에 균형 감각을 찾고자 하는 윤지영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간이 자연과 맺어온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제안한다.

‘서식자’에서는 현대 생태학의 기원이 된 한정된 시스템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성찰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서식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박민하의 <대화77-08-12>는 달 탐사 이후 우주선 지구호로서의 한계를 인식한 인류가 타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시작한 우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이다. 이어서 지구생태계의 오랜 서식자인 인간의 주거지, 도시 생태계의 이야기를 담은 리스투더시티의 <장소상실>과 동물권에 대해 작업해온 조은지 작가의 신작 <문어적 황홀경>과 <봄을 위한 목욕>, <개농장 콘서트>가 함께 소개된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지구의 서식자로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들이 공존, 공생하기 위해 필요한 감각이 무엇인지 묻는다. 인류세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시적 통찰과 감각을 보여주는 박선민의 영상 작품 <버섯의 건축>, <고속도로 기하학2>, 한반도의 멸종위기 식물의 서식처에서 소리를 채집하여 미래의 도서관 목록을 만든 신작 <속삭임과 잠의 도서관>은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킨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변이를 만드는 ‘발효’ 작용에 주목해 이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제안하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발효컬트>는 생태학을 정치나 경제와 같은 분과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으로 정의한 백남준의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백남준은 1960-70년대 반문화운동의 시기, 청년들이 실행한 공동체 실험에 주목하며 젊은이가 젊은이에게서 배우는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그는 하나의 분과로서 생태학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생태학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으며 기술혁명이 있는 곳에 새로운 세계관과 삶의 형식이 필요함을 간파하였다. 생태학에 대한 백남준의 비전은 인간 행동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당신과 우리가 함께 ‘인류세’의 시대를 통과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해주어야 할 때이다.

생태학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 경건한 세계에 대한 관념**이다. 그것은 세계의 기획, 전 지구적인 순환, 인간 행동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너’ 아니면 ‘나’로부터 ‘너와 나’로의...변화로

백남준, 「글로벌 그루브와 비디오공동시장」, 1974

Ⅲ. 주요 작품 소개

1. 백남준 <사과나무> 1995

410×280×110cm, 33대의 TV 모니터, 3 채널 비디오 / 대림문화재단 소장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인간 등의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빛을 스스로 발산하고 전파를 수신하는 TV도 광합성을 하는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미디어 환경의 하나이다. 33대의 텔레비전 모니터로 구성된 백남준의 <사과나무>는 나무모양을 한 미디어 조각으로 “TV는 곧 환경이다”라고 했던 그의 사유를 미디어 생태학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작품이다. 올림픽 게임과 도시의 거리, 빌딩숲, 여성 누드모델이 담긴 영상과 추상화된 패턴의 화면, 물고기, 새 등을 모티프로 한 영상들이 분배기를 통해 상영되며 발산하는 빛과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식체계를 확장시키고 작동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2. 이소요 <TV 정원: 주식>, 2019(신작)

가변크기, 현장 조사와 다매체 설치



이소요는 생물 및 생태를 시각정보나 예술로 환원해 온 문화적 관습에 관심을 가진 작가로 생물학-자연사-예술에서 공유하는 방법론과 가치관을 탐구해 왔다. 작가는 백남준아트센터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TV 정원>을 하나의 미시 생태현장으로 규정하고 이곳의 생물상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일지와 표본으로 작성한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TV정원>의 설치는 화분에 심겨진 관엽 식물의 푸른 잎을 통해 비유적으로 백남준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현재 백남준아트센터에 설치된 <TV정원>은 기관의 10여 년의 역사와 함께 하며 세균, 곰팡이, 버섯, 곤충, 식물, 사람 등 다양한 생물계 구성원이 전형적인 실내 조경의 범주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실제적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젝트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아 가려져있던 예술작품 속 생물들을 가시화하고 현대의 생태 비평적 관점에서 <TV정원>을 읽은 새로운 주석을 제공한다.

3. 윤지영 <에라>, 2019(신작)

가변크기, 유리, 철, 미세플라스틱, 스티로폼, 실리콘, 라텍스 등

*구조설계 및 제작 : 최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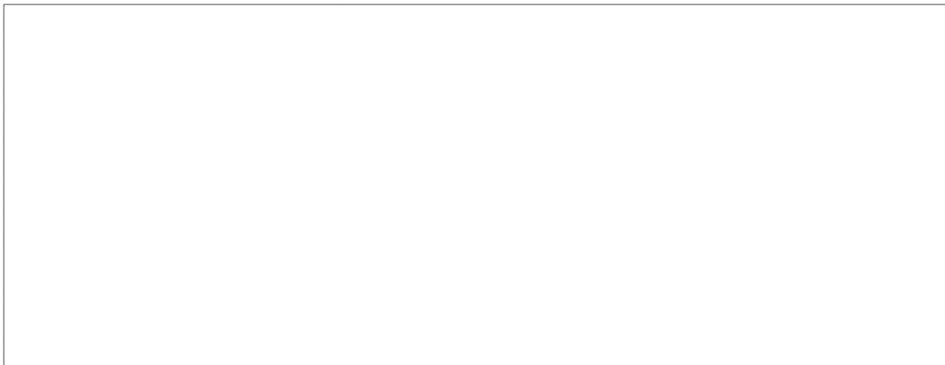


윤지영은 사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와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이를 조각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특히 공동의 목표나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과 노

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왔다. 믿음이나 불안함, 희생과 같은 심리적 해석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그의 조각들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을 연출하고 그 속에서 균형과 타협의 과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간이 편함, 즐거움, 예쁨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을 선택해 움직이는 조각을 제작했다.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스노우 글로브와 천연가스에서 화학적 분리를 통해야만 얻게 되는 헬륨이 채워진 공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사물이다. 물질을 다루는 조각가로서 작가가 느끼는 생태적 민감함은 허물을 벗는 조각에 투영되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작가의 삶이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된다.

4. 박민하 <대화 77-08-12>, 2019 (신작)

가변크기, 형광 벽화, 블랙라이트 조명, 회전 의자
사운드 설치, 10:00
*사운드 작업: 박민하 X 조인철



박민하는 환영과 이미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내는 판타지에 관심을 가지며 영화적 특수 효과나 초기 영화의 마술적 효과에 주목해 작업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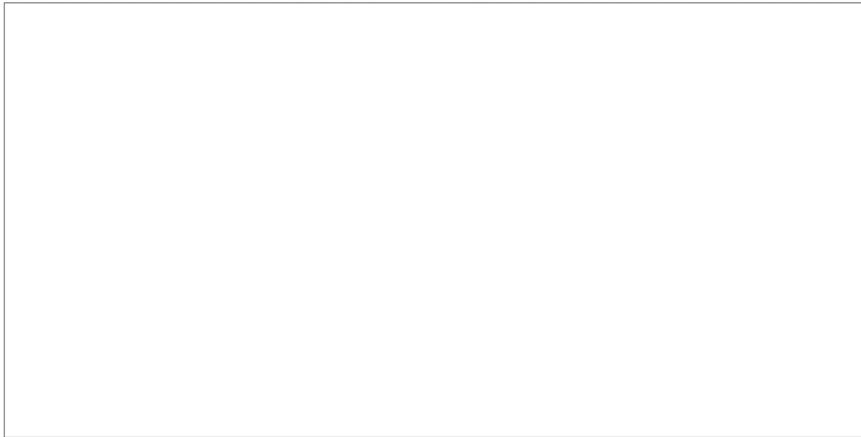
<대화 77-08-12>는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인류가 우주로 전송한 각종 소리의 아카이브와 1969년 아폴로 12호에 넣은 달뮤지엄(moon museum), 1977년 보이저 1,2호에 부착된 골든 레코드(golden records)에 실린 지구의 이미지, 그리고 고대 페루의 나즈카 지상화 등 인류가 우주로 보낸 시각 이미지 기호들로 구성된다. 어두운 방, 블랙라이트에 비추어진 시각 기호들과 공간을 메우는 소리 신호들은 아직 수신자를 만나지 못한 혹은 완성되지 않은 대화의 흔적들이 담겨진 우주극장이다. 지구 밖에 존재할지 모르는 생명체와의 소통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다른 존재자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과 인식을 확장시키고 우주선 지구호의 한계와 가능성을 돌아보게 한다.

5. 제닌 기 <선구체-I>, 2019

가변크기, 폴리염화 비닐, 자성유체(산화철, 기름, 증류 석유), 물, 세제, 모래, 철가루, 전자석, 전자부품 등의 혼합재료

제닌 기 <선구체-II>, 2019

1 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12:01



<선구체>는 인간이 기술과 함께 해 온 그리고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하여 고찰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수천 년 시간동안 지질학적 지층 속에서 지구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왔을 미디어에 대하여 상상하며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생태학적 관계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으로 특정한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하는 <선구체>를 통해 작가는 미디어에 대한 관습적 감각을 시험하고 고정된 감각을 해체해 새로움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물질들은 약간의 전기적 활성화로 인해 미묘한 운동성을 지니며 관객들에게 생경한 공감각적 경험을 제시한다. 작가는 인간, 기술, 영성이 통합된 상황이나 인식을 의미하는 테크노애니미즘과 같은 비(非)-근대적 감각과 관점들을 참조하며 기술과 인간이 함께한 상황을 돌아보고 반추한다

6. 아네이스 톤데 <카본블랙>, 2016~2018

100x150cm, 검은 탄소 입자를 사용한 프린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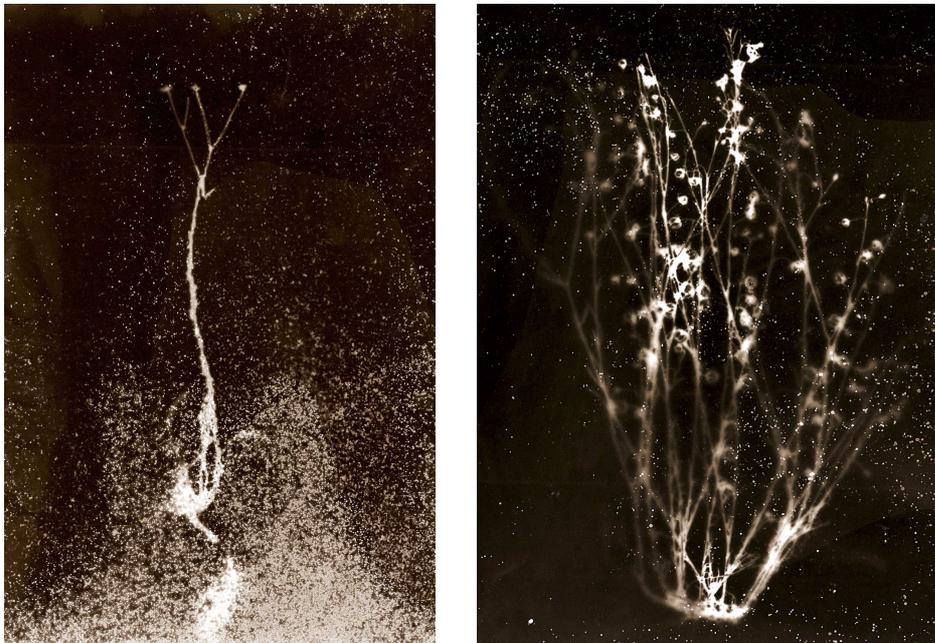


Carbon black - North Sea

<카본 블랙>은 검은 탄소입자인 카본의 흔적을 따라 15일간 영국을 횡단한 여행의 기록사진이다. 검은 탄소입자는 석탄, 라이그라니트, 중유, 혹은 바이오매스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생성되며 교통과 산업 활동, 도로의 침식과 타이어의 마모 때문에도 생성된다. 이 오염물질의 입자들은 바람과 함께 흩어지고 대기의 흐름에 따라 배출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곳으로 가기도 한다. 작가는 채집기가 달린 헬멧을 쓰고 걸어다니며 수집한 탄소 입자들을 사진을 인쇄하는 잉크로 사용하였다. 호흡마스크와 사진기로 구성된 이 보행기기는 '걷는 사진'의 원료를 제공하면서 공기와 인간 행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 방식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공통의 기반을 제안한다.

7. 아네이스 톤데 <체르노빌 식물 표본> 2011~2016

위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제한구역_방사선 수준: 시간당 1.7Microsiverts,
36x24cm, 30개의 레이오그램, 하네물레 용지에 피그먼트 인쇄



<체르노빌 식물표본>은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제한구역에서 추출한 식물표본 모음이다. 방사선 수치가 여전히 높은 이 지역 식물군의 트라우마 연구의 협업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슬로바키아 과학원의 식물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연구소의 마틴 하두치(Martin Hajduch)가 진행한 식물유전학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30개의 아마종 식물 표본 각인들은 원자폭탄이 폭발하며 방출한 빛의 노출효과를 반영한 기술인 포토그램 과정을 통해 표현되었다. 감광성 종이 위에 놓인 식물이 빛을 받아 통과한 흔적들은 실제 방사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은 재앙의 물질적 흔적, 이미지를 가시적인 실루엣으로 포착해 보여준다. 작가는 포토그램 기법을 활용해 체르노빌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면서 식물 속에 갇혀있는 빛(상처)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8. 조은지 <문어적 황홀경>, 2019(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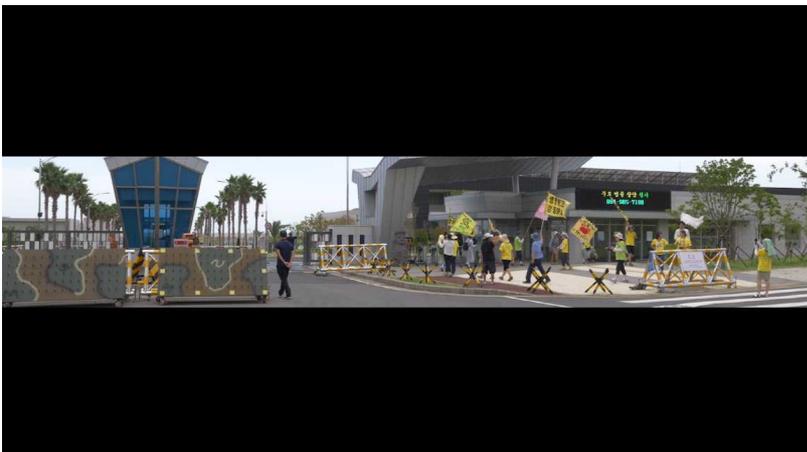
싱글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08:08



대부분의 지구 생명체는 인간과 다른 의식체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문어는 5억년 이상 인간과 다른 계보를 밟아왔다. 인간에게는 가장 이질적인 생물로 인식되어온 문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작가는 공포나 혐오, 혹은 미지의 대상이었던 문어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고자 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의 문어형제가 하나씩 생긴다는 인도네시아의 신화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섬의 해변가와 바다 속을 배경으로 요가와 명상, 변성 의식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언어와 능력을 상상보고자 한다. 작가는 다중 자아의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의 경계를 재설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9. 리슨투더시티, <장소상실: 내성천, 구름비, 옥바라지 골목>, 2017/2019

3 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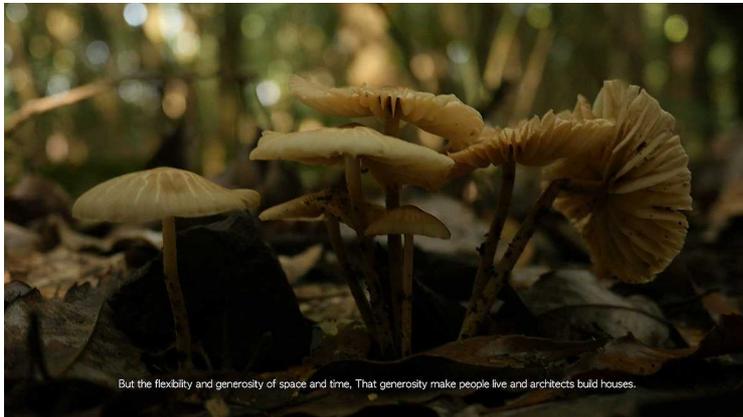


리슨투더시티는 2009년 결성된 디자인, 도시, 건축 콜렉티브로 도시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존재들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장소상실: 내성천, 구름비, 옥바라지 골목>은 2009년부터 기록하고 함께 했던 대한민국의 특정 장소와 그 장소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일제 강점기와 개발독재를 버텨 살아남았으나 재개발로 순식간에 사라진 옥바라지 골목,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내성천의 생물들, 해군기지 건설로 콘크리트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된 강정마을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왜 우리는 이 장소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는다. 작가는 변화와 파괴를 목격하고도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날 일상의 감각이 되어버린 '장소상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서식처가 된 도시 생태계의 구축과 이동에 따라 사라지고 밀려나 보이지 않던 미미한 서식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10. 박선민 <버섯의 건축>, 2018

1 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15:18



<버섯의 건축>은 2017년부터 1년간 제주 꽃자왈 숲속 버섯을 낚은 시선과 느린 움직임으로 관찰해 촬영한 영상에 국내외 건축가 13명의 건축에 대한 내레이션을 결합한 작업이다. 버섯은 유기물을 분해하며 양분을 섭취해 살아가는 균류로 숲의 생성과 소멸의 생태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버섯은 기둥과 지붕이라는 건축적 구조를 압축적으로 가진 생명체이다. 대량생산의 결과로 사라지지 않은 물질이 인류와 자연에게 위협이 되는 시대에 버섯의 소멸과 생성이 건축에서의 다양한 화두와 겹쳐지거나 대비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해보게 한다.

11.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발효컬트>, 2019

가변크기, 혼합매체, 4 채널 영상, 컬러, 무성(반복재생)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발효 작용을 '사회적 발효'라는 은유로 확장하여 협업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콜렉티브이다. 매년 멤버십을 갱신하고 집단의 경계 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관능미를 펼쳐 보이는 한시적인 커뮤니티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자생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궤적을 추적해왔다.

<발효컬트>는 '발효는 오래된 미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발효 문화를 시대말적 전조에 대응해보고 위기를 타개하는 생존방식으로 상상해보는 작업이다. 이들은 무수한 시행착오, 예측 불가능성, 유기적 변화, 구명난 시간성을 하나의 대안적 생존방식으로 인식하면서 지구를 장악해온 포식자 인간이 인간 외의 존재에게서 지식과 감각을 습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매체이론가, 미생물학자, 소설가 등이 제안하는 발효 키트가 전시장에 구현되고 전시기간 중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시간, 몸, 지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발효적 방법으로 상상해보며 새로운 진화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

IV. 전시 연계 프로그램

○ 크리에이티브 씬머

작가	프로그램	일시/장소	회차	대상	내용	참가비
이소요	야장 : 세상 끝 의 버섯	2019.8.4./8. 11 (일) 14:00-16:0 0 (연속 2 회)	2	성인	백남준아트센터 주변을 작가와 함께 산책하며 균계 생물들을 발견 및 수집한 후, 간단한 생물 관찰 방법을 동원하여 그 모습을 시각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시인의 시선에서 단편적으로 접해 온 균의 세계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인간-너머의 지구 생태에 대해 고찰한 현대 진화생물학과 인문학 관점들을 살펴본다	1인/ 5,000원
리슨투 더시티	상 상 의 도시생태	2019.8.8./8. 15 (목) 14:00-16:0 0	2	청소년/ 성인 (18세 이상)	참가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자연 생태와 일상의 관계를 예술가와 함께 탐구하는 퀴즈 형식의 워크샵 활동이다.	1인/ 5,000원
박민하	우 주 로 보 내 는 메시지	2019.8.9. /8.16, 금 10:00-13:0 0	2	가족 (성인 + 10~15세 자녀)	인류가 지구로 보내는 메시지들 혹은 타임캡슐을 모아서 함께 살펴보고 공감가는 메시지와 기호들을 재구성하여 우리 가족의 타임캡슐을 만들어 본다	1팀/ 5,000원

○ 참여 방법 : www.njartcenter.kr 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7월 8일부터 신청가능)

V. 관람안내

- 관람료 - 무료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